

「二八」의 의미용법과 통어적 특징*

이정옥**
jungok-ok@hanmail.net

<目次>

1. 들어가며	4.1 통어적인 특징
2. 선행연구 및 문제의 소재	4.1.1 부사와의 공기
3. <+한도>를 나타내는 「二八」	4.1.2 문말표현의 제한
3.1 통어적인 특징	4.1.3 「二モ」와의 의미대립
3.1.1 부사와의 공기	4.2 <-한도>의 종류
3.1.2 문말표현의 제한	4.2.1 <+기준>을 나타내는 「二八」
3.1.3 「二モ」와의 의미대립	4.2.2 <-기준>을 나타내는 「二八」
4. <-한도>를 나타내는 「二八」	5. 나오며

주제어: 시간명사(time noun), には(niwa), 통어적인 특징(the syntactic feature), 한도(limit), 기준(a datum point)

1. 들어가며

일본어의 시간명사는 절대시간명사, 상대시간명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시간명사는 다음의 예 (1-4)와 같이 조사 「二」와 함께 쓰이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조사 「二」와 함께 쓰이지 못하는 상대시간명사라 하더라도 「ハ」「モ」와 함께 쓰여 「二ハ」「二モ」의 형태가 되면, 성립가능함을 알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3219)

** 동덕여자대학교 일본어과 강사

1) 益岡・田窪(1992 : 74-83)、益岡(1995)、仁田(2002 : 201-258)、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 : 85-89) 등의 분류이다. 대표적으로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 : 85-89)에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시점을 <상대시간명사>, 발화시에 개입치 않고, 절대적으로 나타내는 시점이 정해져 있는 명사를 <절대시간명사>라 칭하고 있다.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 : 88)에서는 <절대시간명사>로 「1時、1日、1月、平成元年、2000年、21世紀、江戸時代、正月、春、日曜日」등을, <상대시간명사>로는 「今日、明日、あさって、昨日、おととい / 今週、来週、先週 / 今月、来月、先月 / 今年、来年、去年 / 今、昔」 등을 들고 있다. 「明日」「明後日」는 대표적인 상대시간명사라 할 수 있다.

- (1) 作業は {明日・*明日に・明日には}終わるだろう。 < 스위트 >2
 (2) {明後日・*明後日に・明後日には}届くでしょう。 < 야푸로그 >
 (3) (아베首相) {今日・*今日に・今日にも} 国民栄養賞の授与を検討するよう指示へ。
 < とくダネ! 2018年3月2日 >
 (4) あえていえば、いまは敵対していないというだけで、{明日・*明日に・明日にも}互いに
 攻撃しあうかもしれない。 < もしも >

이 경우 「二ハ」와 「二モ」는 각각 <한도>와 <최대치의 예상>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³⁾. 그러나, 다음의 예(5)와 같이 「二ハ」가 사용되었음에도 <한도>를 나타내지 않는 예문도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二ハ」의 예문도 시야에 두고, <한도>를 나타내는 경우와 <한도>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밝히기 위해, 각각을 구분할 수 있는 통어적인 특징을 생각해 보고, 의미상의 차이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5) 今たまたま、会社へ電話をかけ終わったところで、明後日には父の本葬が行われる。
 < 訃報は >

2. 선행연구와 문제의 소재

선행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고 집필의 계기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해 두고자 한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일본어의 상대시간명사는 조사 「二」와 함께 쓰이지 못한다(예(1~4)). 그러나 실례를 수집하여 살펴보면 「상대시간명사+二」에 부조사 「ハ」가 함께 쓰인 「상대시간명사+二ハ」중에는 <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줄고(2017)).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5)와 같이 <한도>를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는 예문이 존재하므로, 「二ハ」의 전체상을 명확히 하고자 본 논문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상, 본고 집필 계기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⁴⁾에 대해 살펴보겠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각각의 조사 즉, 「二」와 「ハ」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奥田(1983), 尾上(1981)등 다수). 조사 「二ハ」에 대한 선행연구도 몇몇 존재하나, 이 경우는

2) 용례는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BCCWJ(Balanced Corpus of contemporary Written Japanese) 少納言과 YAHOO에서 추출하였다.

3) 줄고(2017, 2018)

4) 줄고(2017)의 선행연구에 본고의 입장을 첨가하였다.

예(6)과 같이 장소명사와 함께 쓰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로 「ニハ」와 「デハ」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山木(2017)는 화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ニハ」만 사용가능한 경우, 「デハ」만 사용가능한 경우, 예(6)과 같이 「ニハ」와 「デハ」모두 사용 가능한 경우에 대해 밝히고 있다.

(6) 市民図書館{には・では}、推薦図書のコナーが設けられている。 (山木 2017 : 66)

그러나, 본고의 대상인 시간명사와 함께 쓰인 「ニハ」에 대한 선행연구는 각각의 조사 「ニ」와 「ハ」에 대한 연구, 혹은 「장소명사+ニハ」연구에 비하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간단한 언급만 있는 정도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 : 89)를 들 수 있다.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 : 89)에서는 「父は明日は帰ってくるだろう」「父は明日には帰ってくるだろう」의 의미상의 차이를 간단히 기술하였다. 「父は明日は帰ってくるだろう」는 「父が帰ってこない日(昨日、今日、あさって など)」와의 대비를 나타내나, 「父は明日には帰ってくるだろう」는 위와 같은 해석 이외에 「遅くとも」라는 의미가 있으며, 「明日」는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의 한도를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적에 그칠 뿐 자세한 의미용법과 통어적 특징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았다. 어떤 조건하에서 이런 의미가 성립가능한지 혹은 다른 의미용법은 없는지 다양한 예문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본고에서 사용하는 <한도>라는 용어는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 : 89)에 따랐다. 또한, 간단한 지적에 그치고 있으므로, <한도>를 나타내지 않는 예문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ニハ」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로는 中村(2001 : 173~191)를 들 수 있다. 中村은 尾上(1981)의 「ハ」에 의한 「극한표시」라는 용어를 빌려, 「ニハ」에 극한 표시가 존재하므로 광의의 복합조사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ニハ」의 극한 표시를 「含意の投射」라는 의미론적, 화용론적인 규칙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この仕事は、あしたには片付きます」「月曜日には仕上がっていると思います」と 같은 예문을 <極限表示を表すニハ>로, 「楽しかった夏休みも明日には終わる」と 같은 경우는 <情意表現のニハ>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와 마찬가지로 분류 방법이 명시적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情意表現のニハ>에 대해서도 명제의 확정성이라는 의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줄고(2017)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상대시간명사+ニハ」가 <한도>를 나타내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 통어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상대시간명사+ニハ」가 한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명제가 불확실하며, 그 명제를 추량하여, 늦어도 어느 정해진 시간까지는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추량을 나타내는 문말표현과 자주 쓰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도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는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상대시간명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二八」의 전체상을 밝히기에는 부족하였다.

이상, 본고 집필 계기와 선행연구 및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明日」「明後日」와 같은 상대시간명사뿐만 아니라, 절대시간명사의 예문까지 시아에 두고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昨日」「一昨年」같은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명사는 제외하고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명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예문을 수집한 후 이들의 의미기능을 설명하고 분류하는 기준이 될 만한 부사와의 공기여부, 문말표현 등에 초점을 두어 고찰을 진행한다. 「二八」가 <한도>를 나타내는 경우는 <+한도>로, <한도>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는 <-한도>로 표시하고, <+한도>와 <-한도>를 대칭적인 관계로 파악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3. <+한도>를 나타내는 「二八」

우선, 「二八」를 <+한도>와 <-한도>로 분류하는 기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예문 수집을 통해 수집된 예문들은 크게 <+한도>의 경우와 <-한도>로 나눌 수 있었는데, 크게 부사 「遅くても」「きっと」「たしか」와의 공기여부, 문말표현인 「だろ」「と思う」와의 공기여부를 들 수 있다. 이 점은 명제의 확정성이라는 측면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통어적인 기준에 따라 「二八」를 <+한도>와 <-한도>로 이분함으로써 「二八」 전체를 대칭적인 관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졸고(2017)에서 다룬 바 있는 <+한도>에 대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3.1 통어적인 특징

통어적인 특징으로는 부사와의 공기, 문말표현의 제한을 살펴보았다.

3.1.1 부사와의 공기

본고에서는 「二八」를 <+한도>와 <-한도>를 구분할 수 있는 통어적 기준의 첫 번째로 부사와의 공기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된 「遅くても」와의 공기여부,

진술부사⁵⁾ 중 추량과 호응하는 「きっと」와의 공기여부, 마지막으로 「たしか」⁶⁾와의 공기여부이다. <+한도>의 예문인 예(7)과 예(8)은 예(7-1), 예(8-1)과 같이 「遅くても」와 공기가능하며, 또한 예(7-2), 예(8-2)와 같이 「きっと」와도 공기가능하다. 그러나 예(7-3), 예(8-3)과 같이 「たしか」와는 공기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7) 今日でなければ明日には, しかるべき筋に伝えるだろう。 <夢>

(7-1) 遅くても明日には, しかるべき筋に伝えるだろう。

(7-2) きっと明日には, しかるべき筋に伝えるだろう。

(7-3) * たしか明日には, しかるべき筋に伝えるだろう。

(8) 明日には帰ってくると思います。 <Yahoo! 知恵袋>

(8-1) 遅くても明日には帰ってくると思います。

(8-2) きっと明日には帰ってくると思います。

(8-3) * たしか明日には帰ってくると思います。

3.1.2 문말표현의 제한

3.1.1절의 부사와의 공기여부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한도>의 경우, 문말에는 추량표현이 쓰인다. 각각의 예를 다음과 같이, 「だろう」「と思う」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9) 今日でなければ明日には, しかるべき筋に伝えるだろう。 <夢> (=예(7))

(9-1) 今日でなければ明日には, しかるべき筋に伝えると思う。

(10) 明日には帰ってくると思います。 <Yahoo! 知恵袋> (=예(8))

(10-1) 明日には帰ってくるだろう。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실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1) 今日、発送してくれましたので、明日か、明後日には届くでしょう。 <Yahoo! ブログ>

5) 陳述副詞(叙述副詞·呼応副詞とも呼ばれる)は、否定・推量・仮定など、述語の陳述的な意味を、補足したり明確化したりする副詞である。<否定><推量><否定推量>(中略)などが通常あげられる。(工藤 2000:172)
6) 「たしか」は、記憶を呼び起こし、記憶の中に蓄えられた情報を探すといった意味合いをもった副詞である。(中略)この副詞が共起する文に出現する判定のモダリティは、確言であって、「ダロウ」や「かもしれない」などの概言系は現れない。(仁田 2000:107~108)

(12) システムの不備でしょう。明日には更新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ので、お楽しみに！

<Yahoo! 知恵袋>

이들 예문이 <+한도>를 나타내는 것은 부사와의 공기, 문말표현의 제한을 통해서도 설명가능하지만, 예(9)의 「今日でなければ」, 예(11)의 「明日か」라는 문맥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3.1.3 「ニモ」와의 의미대립

마지막으로, <+한도>를 나타내는 「二ハ」의 또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의미적으로 「二モ」와 대립 관계를 이룬다는 점이다.

(13) 夫はそのまま、女のところへ行つた。あさってには、帰ってくるだろう。 <輝き>

(14) 夫はそのまま、女のところへ行つた。あさってにも、帰ってくるだろう。

위 예문의 명제는 모두 「あさって、夫が帰ってくる」이다. 그러나, 「夫が帰ってくる」일시로 예상되는 「あさって」를 <한도(예상가능한 가장 늦은 일시)>로 파악하느냐(예(13)), <최대치의 예상(예상가능한 가장 빠른 일시)>으로 파악하느냐(예(14))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13-1) 夫はそのまま、女のところへ行つた。遅くてもあさって、帰ってくるだろう。

(14-1) 夫はそのまま、女のところへ行つた。早ければあさって、帰ってくるだろう。

각각, 예(13-1), 예(14-1)과 같이 「遅くてもあさって」, 「早ければあさって」로 치환가능함을 통해서도 설명가능하다.

4. <한도>를 나타내는 「二ハ」

3절에서는 <+한도>를 나타내는 「二ハ」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미 지적하였듯이 모든 「二ハ」의 예문이 <+한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4절에서는 <+한도>를 나타내지 않는 「二ハ」, 즉 <-한도>를 나타내는 예문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한다.

7) 첨가의 의미로도 해석가능하나, 본고에서는 <한도>와의 대비에 중점을 두고자, 첨가의 해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4.1 통어적인 특징

<한도>를 나타내는 「二ハ」는 공통적으로 명제가 확정적이므로 부사 「遅くても」와 공기불가능하며, 「きっと」와도 공기불가능하다. 한편, 「たしか」와는 공기가능하며, 문말표현인 「だろう」「と思う」와는 공기할 수 없다. 또한, <한도>의 경우는 <기준점>을 나타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동사의 종류 등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본고에서는 <한도>로 표기하였으나, <한도>의 적극적인 의미는 <감개(感慨)>라고 할 수 있다.

4.1.1 부사와의 공기

(15) 明日には父の本葬が行われる。 <訃報は> (=예(5))

(15-1) *遅くても明日には父の本葬が行われる。

(15-2) *きっと明日には父の本葬が行われる。

(15-3) たしか明日には父の本葬が行われる。

(16) 夏休みも明日には終わる。

(16-1) *遅くても夏休みも明日には終わる。

(16-2) *きっと夏休みも明日には終わる。

(16-3) たしか夏休みも明日には終わる。

아버지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이 내일임을 나타내는 경우가 예(15)이고(「明日=父の本葬が行われる日」),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이 내일임을 나타내는 예문이 예(16)(「明日=夏休みが終わる日」)이다. 이와 같이 시간명사가 명제의 확정시에 포함될 경우는 예 (15-1), 예(16-1)과 같이 「遅くても」와 공기 불가능하며, 또한 예(15-2), 예(16-2)와 같이 「きっと」와도 공기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확정된 명제이었음을 기억의 창고에서 불러내어 환기할 수 있으므로 예(15-3), 예(16-3)과 같이 「たしか」와 공기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실례의 공통점은 기본형⁸⁾을 취하며, 명제가 확정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다음에 살펴볼

8) その生起・出現がすでに「予定」になっておれば、話し手の情報・知識の倉庫の中に蓄えておくことができる。さらに言えば、予定として捉える(扱う)ということが、未来に生じる事態の生起・出現を、自らが獲得し知っている情報として、自らの情報の貯蔵庫に登録しておく・書き込んでおくことに外ならない。「もうすぐわだつみ2号が竣工します。そしたらローテーションが少し楽になります」「午後三時から北斗で、これまでの調査の中間発表がある」(後略)「今日は一時に丸越商事の水口さまがお見えになります」生起そのものは、未来に生じることであれば、不確かさは払拭しきれないにして

문말표현의 제한과도 연동한다.

4.1.2 문말표현의 제한

<-한도>를 나타내는 「ニハ」는 <+한도>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문말표현에 추량을 나타내는 모달리티가 오지 못 한다.

(17) 明日には父の本葬が行われる。 <訃報は> (=예(15))

(17-1) #9)明日には父の本葬が行われるだろう。

(17-2) *明日には父の本葬が行われると思う。

(18) 夏休みも明日には終わる。 (=예(16))

(18-1) #夏休みも明日には終わるだろう。

(18-2) *夏休みも明日には終わると思う。

추량을 나타내는 「だろう」와는 공기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예(17-1), 예(18-1)과 같은 문은 성립하나, 이때의 「だろう」는 확인요구¹⁰⁾를 나타내는 「だろう」로, 상승인터네이션을 수반한다. 또한 「と思う」와는 예(17-2), 예(18-2)와 같이 공기불가능하다.

4.1.3 「ニモ」와의 의미대립

(19) 明日には父の本葬が行われる。 <訃報は> (=예(15, 17))

(19-1) *明日にも父の本葬が行われる。

(20) 明日には夏休みが終わる。 (=예(16, 18))

(20-1) *明日にも夏休みが終わる。

<+한도>의 경우는 「ニハ」가 「ニモ」와 의미적으로 대립관계를 이루었으나, <-한도>의 경우는 예(19-1), 예(20-1)과 같이 대립관계를 이루지 못한다¹¹⁾. 다음의 예(19-2), 예(20-2)와 같이

も、登録された情報の存在そのものは、獲得され蓄えおかれていることにおいて、疑いのない確かなものにほかならない。言い換えれば、予定も、情報そのものは、すでに獲得されたものとして、確認されたものにほかならない。(仁田 2000:109~110)

9) #는 문은 성립하나, 문의 의미(文意)가 바뀔을 의미한다.

10) 仁田(2000, 64~67)

「早ければ」와의 공기를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도 확인가능하다.

(19-2) * 早ければ明日にも父の本葬が行われる。

(20-2) * 早ければ明日にも夏休みが終わる。

예(15, 16)이외에 <한도>를 나타내는 실례를 몇 개 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 大丈夫なのか日本代表！来年にはココ日本でW杯が行われるんだぞ！ホスト国がこんな弱体でいいのか！ <weeklyぴあ>

(22) 次男の悠平も明日には幼稚園の入園式だ。 <地平線>

4.2 <-한도>의 종류

위와 같은 통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한도>는 「デ」격과의 치환가능성, 동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과 <-기준>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4.2.1 <+기준>을 나타내는 「二ハ」

본고에서는 「デ」로 치환가능한 「二ハ」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デ」로의 치환가능성을 판단기준으로 선택한 이유는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 : 20)의 지적에 따른다.

事態が成立・完成・実現するときの、数量的・時間的・空間的な範囲の上限や終点を限界という。限界は主として「で」によって表される。「で」は、時に関わる名詞についた場合、事態の成立する時点を表す。このとき、「で」は、名詞の表す時点までの事態の経過を含意し、それまで続いていた事態が終了して新たな事態が成立することを表す。(사태가 성립·완성·실현될 때의 수량적·시간적·공간적 범위의 상한이나 종점을 한계라고 한다. 한계는 주로 「で」로 표현된다. 「で」는 시간과 관련된 명사와 함께 쓰여 사태가 성립되는 시점을 나타낸다. 이 때, 「で」는 명사가 나타내는 시점까지의 사태의 경과를 함의하고, 그때까지 계속되던 사태가 종료하여 새로운 사태가 성립함을 나타낸다¹²⁾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 : 90)

(23) 夕方{6時には・6時で}閉店する和菓子屋があります。 <yahoo!知恵袋>

11) 다만, 예(19-1)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장례식이 피칠 못한 사정으로 또 이뤄진다는 의미로 쓰였다면 「二モ」는 첨가의 의미만을 나타낸다.

12) 번역은 인용자에 의함.

- (24) 私は{今年には・今年で}34歳になる。 <yahoo>
 (25) {14時には・14時で}終わるお肉のパック詰め・包装。 <yahoo>
 (26) かかりつけの病院から気管支を広げる薬を処方してもらったのですが、{明日には・明日で}薬切れするので、もう一度(薬を)処方してもらおうかな…と、思っています。
 <yahoo>

위의 예문(23-26)은 모두 <한도>의 예문으로 각각 조사 「デ」로 치환가능하며, 어떠한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기준점을 나타낸다. 또한 <+기준>을 나타내는 경우, 동사에도 「終わる、閉まる、閉店する、薬切れする、なる」 등과 같은 한계동사가 온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다.

4.2.2 <기준>을 나타내는 「ニハ」

한편, 4.2.1의 <+기준>과 달리, <기준>의 경우는 다음의 예(27-30)과 같이, 조사 「デ」로의 치환이 불가능하다.

- (27) {明日には・*明日で}父の本葬が行われる。 (=예(15))
 (28) 次男の悠平も{明日には・*明日で}幼稚園の入園式だ。 <地平線> (=예(22))
 (29) 時はまさにゴールデンウィークの直前。{明後日には・*明日で}、全国から大勢の陶磁器ファンを集めるとい陶器市が待ち受けているとあって、街は～ <職人>
 (30) {来年には・*来年で}全国棚田サミットが松代・松之山地域を中心に開催されるので～ <市報>

동사의 종류도 <+기준>의 한계동사와는 달리 「行われる、待ち受ける、開催される」 등의 비한계동사가 온다.

이상과 같이, <한도>를 <+기준>과 <기준>으로 하위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한도>의 구체적인 의미로는 「嬉しいことに、うれしくも、残念ながら」 등과 같은 평가부사와 공기가능함을 통해 <감개>로 파악가능하다.

- (16-1) 残念なことに、夏休みも{明日には・明日で}終わる。
 (22-1) 嬉しいことに、{明日には・*明日で}次男の悠平幼稚園の入園式だ。
 (8-1) *嬉しいことに明日には帰ってくると思います。

예(16-1)은 <한도>의 <+기준>, 예(22-1)은 <한도>의 <-기준>을 나타내는 예로 평가부사와 함께 쓰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의미는 <감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도>를 나타내는 경우는, 예(8-1)와 같이 평가부사와의 공기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도>가 확정된 명제, 예정된 명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부사와 문의 타입에 대해서는 다음의 工藤(2000 : 222~22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さいわいあの人が来てくれた。彼は、感心によく働く。*さいわい君が来てくれ。*ぼくたちも、感心にはたらしましょう。」(例文省略)このように、評価成分に陳述的なタイプと共起制限があるのは、評価を下すためには、その対象が実現している(さいわい晴れタ/テイル)か、少なくとも実現が予定されている必要がからだと考えられる。つまり、評価という陳述性が、評価成分としてことからの<実現>ないし<予定>を求めるために、未実現のことがらを要求する命令・勧誘や、未確認のことがらに対する中立的質問といった叙法となじまないのである。(「さいわいあの人が来てくれた。彼は、感心によく働く。*さいわい君が来てくれ。*ぼくたちも、感心にはたらしましょう。」(예문생략)이와 같이 평가성분에 진술적인 타입과의 공기제한이 존재하는 이유는 평가를 하기위해서는 그 대상이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이 예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평가라는 진술성이 평가성분으로서 어느 사태의 <실현> 혹은 <예정>을 요구하므로, 미실현사태를 요구하는 명령, 권유, 미확인사태에 대한 중립적인 질문과 같은 서법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¹³⁾工藤(2000 : 222~223)

즉, 평가란 어떤 사태가 확정된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명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中村(2001 : 187~188)는 다음의 예(31, 32)와 같은 「二ハ」를 情意表現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문 또한 「楽しかった、つらかった」와 같은 정의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어 분류하기보다는 「明日、夏休みが終わる」라는 명제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음에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고에서는 <+한도>와의 대립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도>로 설명하였다. 또한, 평가부사과의 공기여부를 통해 그 차이를 확실히 할 수 있었다.

(31) 楽しかった夏休みも、明日には終わる。

(32) つらかった夏休みも、明日には終わる。

中村(2001 : 187~188)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대비적인 관계를 명백히 하고자 <-한도>로 설명하였으나,

13) 번역은 인용자에 의함.

평가부사와의 공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소극적인 <한도> 대신에 적극적인 의미로 <감개(感慨)>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 있다.

5. 나오며

본고에서는 일본어의 시간명사와 함께 쓰인 조사 「二ハ」의 의미를 <+한도>와 <-한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분류기준으로는 부사 「遅くても」「きっと」「たしか」와의 공기여부와 문말 제한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대치의 예상(예상가능한 가장 빠른 일시)>을 나타내는 「二モ」와의 의미대립 여부도 알아보았다.

<+한도>의 경우, 「遅くても」「きっと」와 함께 쓰일 수 있는 반면 부사 「たしか」와는 공기불 가능하다. 한편, <-한도>의 경우는 부사 「遅くても」「きっと」와는 함께 쓰일 수 없으며, 「たしか」와는 공기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말표현에 있어서는 <+한도>의 경우는 「だろう」「と思う」와 같은 추량의 모달리티와 함께 쓰일 수 있으나, <-한도>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분류기준은 결국 명제의 확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다. 즉, <+한도>는 그 명제가 불명확한 것임에 반해, <-한도>의 경우는 명제가 정해진 일, 예정된 일임을 나타낸다. 「二モ」와의 의미대립에 있어서도, <+한도>의 경우는 의미대립이 가능하였으나, <-한도>의 경우는 불가능하였다.

또한, <-한도>는 기준을 나타내는 조사 「デ」로 치환가능한지에 따라, 「デ」로 치환가능한 <+기준>과 「デ」로 치환불가능한 <-기준>으로 재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기준>에는 한계동사라는 어스펙트적 특징을 갖는다. <-기준>은 한계동사와의 동사가 쓰임을 알 수 있었다. <-한도>는 <+한도>가 아니라는 소극적인 의미로 제시하였으나, 평가부사등과의 공기를 통해 <감개>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가능성도 소개하였다.

앞으로는 과거시간명사, 복합조사로서의 가능성 및 한국어와의 대조연구 등도 시야에 넣어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이정옥(2017) 「한도를 나타내는 二ハ와 문말표현-상대시간명사「明日」「明後日」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58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47-58
- _____ (2018) 「상대시간명사「にも」의 의미기능과 문의 제약」 『일본근대학연구』 60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7-39

尾上圭介(1981)「「は」の係助詞性と表現的機能」『国語と国文学』至文堂, pp.102-118
 奥田靖雄(1983)「「に」格の名詞と動詞とのくみあわせ」『日本語文法・連語編(資料編)』むぎ書房, pp.281-323
 工藤 浩(2000)「副詞と文の陳述的なタイプ」『日本語の文法3モダリティ』森山卓郎他著, 岩波書店, pp.163-234
 工藤真由美(1995)『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ひつじ書房, pp.96-111
 中村ちどり(2001)「時点の極限を表示するニハ」『日本語の時間表現』くろしお出版, pp.173-191
 仁田義雄(2000)「認識のモダリティとその周辺」『日本語の文法3モダリティ』岩波書店, pp.2-163
 _____(2002)「時間関係の副詞とその周辺」『副詞的表現の諸相』くろしお出版, pp.201-258
 _____(2009)『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その周辺』ひつじ書房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8)『現代日本語文法6』くろしお出版, pp.233-238
 _____(2009)『現代日本語文法2』くろしお出版, pp.85-89
 益岡隆志(1995)「時の特定、時の設定」『複文の研究(上)』くろしお出版, pp.149-166
 益岡隆志・田窪行則(1992)『基礎日本語文法-改訂版-』くろしお出版, pp.74-83
 山本真理子(2017)「場所名詞に後節する「ニハ」と「デハ」」『言語文化学研究言語情報論』12、大阪府府立大学、
 pp.65-83

【用例出典】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BCCWJ(Balanced Corpus of Contemporary Written Japanese) 少納言
YAHOO検索エンジン

논문투고일 : 2019년 03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4월 16일
 1차 수정일 : 2019년 05월 09일
 2차 수정일 : 2019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5월 17일

<要旨>

「ニハ」의 의미용법과 통어적 특징
이정옥

본고에서는 일본어의 시간명사와 함께 쓰인 조사 「ニハ」의 의미를 <+한도>와 <-한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분류기준으로는 부사 「遅くても」「きっと」「たしか」와의 공기여부와 문말제한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대치의 예상(예상가능한 가장 빠른 일시)>을 나타내는 「ニモ」와의 의미대립 여부도 알아보았다.

<+한도>의 경우, 「遅くても」「きっと」와 함께 쓰일 수 있으나, 부사 「たしか」와는 공기불가능하다. 한편, <-한도>의 경우는 부사 「遅くても」「きっと」와는 함께 쓰일 수 없으며, 「たしか」와는 공기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말표현에 있어서는 <+한도>의 경우는 「だろう」「と思う」와 같은 추량의 모달리티와 함께 쓰일 수 있으나, <-한도>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분류기준은 결국 명제의 확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다. 즉, <+한도>는 그 명제가 불명확한 것임에 반해, <-한도>의 경우는 명제가 정해진 일, 예정된 일임을 나타낸다. 「ニモ」와의 의미대립에 있어서도, <+한도>의 경우는 의미대립이 가능하였으나, <-한도>의 경우는 불가능하였다. 또한, <-한도>는 기준을 나타내는 조사 「デ」로 치환가능한지에 따라, 「デ」로 치환가능한 <+기준>과 「デ」로 치환불가능한 <-기준>으로 재분류할 수 있었다.

Meaning and Syntactic Feature of “NIWA”
Lee, Jung-Og

“Time noun+には” was classified with <+limit> and <-limit>. The frames are the concurrent propriety with the adverb “遅くても”, “きっと”, “たしか” and the sentence restriction.

In case of <+limit>, it can be used together with “遅くても”, “きっと”, but it cannot be used together with an adverb “たしか”. In case of <-limit>, it cannot be used together with “遅くても”, “きっと”, but it can be used together with an adverb “たしか”.

And, In case of <+limit>, it can be used together with “だろう”, “と思う”, but in case of <-limit>, it cannot be used together with “だろう”, “と思う”.

This is a problem of the certainty of the proposition. In other words, a proposition of <+limit> has Uncertainty, but a proposition of <-limit> has certainty. So, <+limit> and “にも” are contrasted each other. but <-limit> and “にも” are uncontrasted each other. And <-limit> was classified with <+datum point>, <-datum point> by changing to “で”.